

# 간호학과 신입생의 간호사이미지, 직업가치관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장영미\*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 The Influence of Nursing Image, Job Value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First Year Nursing Students

Young-Mi Jang\*

Professor, Dept. of Nursing,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간호사 이미지, 직업가치관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대상자는 D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의 간호학과 신입생 306명이며, 2018년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정도는 4.12점, 직업가치관은 3.12점, 간호전문직관은 3.98점이었다. 간호전문직관은 직업가치관, 간호사 이미지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는 간호사 이미지, 직업가치관이었고, 전체 설명력은 69%이었다. 따라서 간호학과 신입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 이미지를 높이는 제도적인 교육과 전략이 필요하며 간호사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키워드** : 간호학과 신입생 학생,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직관, 직업가치관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nurse image, job value on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first year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7 to May 14, 2018 for 306 first year nursing stude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The average degree of nursing image at 4.12, job value score of 3.12, and nursing professionalism score of 3.98.

Nursing professionalism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nursing image( $r=.823, p<.001$ ) and job value( $r=.492, p<.001$ ). The significant variables explaining nursing image( $\beta=.760, p=.000$ ) and job value( $\beta=.134, p=.000$ ) These factors explained 69% of nursing professionalism. It is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 that consider the nursing image, job value of nursing students to help them establish an acceptable view of nursing professionalism.

**Key Words** : First Year Nursing students, Nurse image, Nursing Professionalism, Job value Nursing Professionalism education

### 1. 서론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호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 [1-2]. 이러한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학생 때부터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면서 변화에 대응하고 긍정적이고 보다 높은 전문

직관을 형성하여야 한다[3].

간호학과 학생들은 다른 학과 학생들에 비해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 및 적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평가가 부족하고[4], 본인의 적성보다는 선생님이나 부모의 권유로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5]. 이에 신입생들에게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직

\*Corresponding Author : 장영미(jym79@dst.ac.kr)

Received August 26, 2018

Revised September 9, 2019

Accepted September 20, 2019

Published September 30, 2019

업 가치관 및 간호전문직관을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6].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견해와 그 역할에 대한 직업적 견해로 정의되고, 이는 간호에 대한 소명, 가치관과 신념을 말한다[1].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은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간호업무 수행능력과 조직 몰입도를 높여[7] 이직이나 소진을 감소시킨다[8]. 또한 긍정적이고 확고한 간호전문직관을 가진 간호사는 다양한 의료현장에서 다른 전문의료인들과 조화를 이루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간호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하므로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5].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사가 간호에 대해 가지는 신념, 가치, 생각, 관념 등의 태도를 형성하는 요인이다[9]. 사회적으로 취업의 용이성과 직업의 안정성 등으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나[5], 여전히 간호사는 자율성과 독자성이 부족한 역할 수행과 노력에 비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존재하고 있다[10]. 간호학생이 간호사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간호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정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간호학과 신입생들에게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3, 11]. 간호학생들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면, 간호사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 및 실습에 임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간호현장에서의 간호사 역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5].

직업가치관은 자신의 소속된 직업에 대해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는가를 말하는 것으로[12],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라는 직업은 전문직이며 올바른 직업가치관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직업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된 간호사는 그렇지 않은 간호사에 비해 직업에 대한 갈등이 적고, 간호업무수행능력 및 조직몰입도가 높으며 역할갈등이 낮아진다고 하였고[5], 직업가치관이 높은 간호사일수록 역할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13] 간호사의 직업가치관 정립은 간호사가 임상에 적응하고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는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

문직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3,6], 졸업학년 간호학생과 남자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영향 요인을 보는[3,9] 등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왔을 뿐 간호학과 신입생에 대한 간호사 이미지, 직업가치관과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수준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간호사 이미지, 직업가치관이 간호전문직관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고 간호교육과정에 적용함으로써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 형성과 간호전문직관 및 직업가치관 확립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간호사 이미지, 직업가치관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직업가치관 및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직업가치관 및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직업가치관 및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간호사 이미지, 직업가치관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의 간호학과 신입생 306명의 학생으로 본 연구에 목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이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8년 5월 7일부터 5월 14일간 수집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D 대학교로부터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2018-003-005)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내용에 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 연구결과 등을 설명하였고 익명에 대한 보장과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 소요시간은 약 15분 정도였고 설문이 끝난 후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7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20, 검정력 .85, 유의수준 0.05로 계산한 결과 필요한 최소 대상자 수는 총 182명이었으나, 전체 학년이 아닌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구이므로 불실하게 응답한 6명을 제외하고 신입생 전원 30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3.3 연구도구

#### 3.3.1 간호사 이미지

Yang[14]이 개발하고, Lee 등[15]이 수정·보완한 것으로 전통적 이미지(12문항), 사회적 이미지(6문항), 전문적 이미지(6문항), 개인적 이미지(3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총 27개 문항의 5점 척도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부정적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Lee 등[1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 3.3.2 직업가치관

Doo와 Kim[16]이 Q 방법론을 통해 제시한 총 28개의 Q표본 진술문으로 구성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진술 24문항과 부정적 진술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정적 진술문항은 역코딩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가치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Doo와 Kim[14]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2$ 이었다.

#### 3.3.3 간호전문직관

Yeun 등[17]이 개발한 도구를 Han 등[18]이 요인분석을 통해 18문항으로 축소한 도구로 전문직 자아 개념(6문항), 사회적 인식(5문항), 간호의 전문성(3문항), 간호계의 역할(2문항), 간호의 독자성(2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부정적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Han 등[18]의 연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 3.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결측치 처리 후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분석을 하였고,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직업가치관 및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평균과 평균편점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간호사 이미지, 직업가치관 및 간호전문직관 정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로,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은 다중회귀분석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직업가치관,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총 306명으로 여학생이 266명(86.9%), 남학생이 40명(13.1%)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다. 종교는 무교가 175명(57.2%)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95명(31.1%), 천주교 24명(7.8%)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168명(54.9%) 가장 높았고, 취업률이 높아서 학과를 선택했다고 답한 경우가 121명(39.5%)이었다. 가족 중에 간호사가 있는 경우가 77명(25.2%)이었고, 간호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220명(71.9%)이었고, 간호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입원이나 병원 방문 중 만난 간호사를 통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123명(40.2%), 대중매체를 통해서 107명(34.9%) 순이었다.

### 4.2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직업가치관 및 간호전문직관 정도

간호학과 신입생의 간호사 이미지, 직업가치관 및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간호사 이미지 총점은 4.12점( $\pm 0.46$ )이었다. 간호사 이미지 하위영역 중 전문적 이미지가 4.40점( $\pm 0.49$ )으로 가장 높았으며, 간호학과 신입생의 직업가치관 정도는 3.12점( $\pm 0.27$ )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총점이 3.98점( $\pm 0.45$ )이었다. 간호전문직관 하위영역 중 간호의 독자성이

4.18점(±0.7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3 간호사 이미지, 직업가치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직업가치관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r=.823, p<.001$ ). 즉 간호사 이미지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가치관과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r=.492, p<.001$ ).

4.4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간호사 이미지, 직업가치관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 진단은 다중공정성, 잔차를 진단한 결과

회귀모형 진단은 다중공정성, 잔차를 진단한 결과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공차한계(tolerance)는 .778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IF)도 1.286으로 기준치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정성 문제가 없었다. Durbin-Watson 값은 1.880으로 2에 가까우므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잔차의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340.52, p<.001$ ), 모형의 설명력은 69%이었다.

회귀분석 결과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사 이미지( $\beta=.76, p=0.000$ ), 직업가치관( $\beta=.13, p=0.000$ ) 순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06)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n   | (%)  |
|---|-------------------------------|-----|------|
| Gender  | Male                          | 40  | 13.1 |
|   | Female                        | 266 | 86.9 |
| Religion  | Christian                     | 95  | 31.1 |
|   | Catholic                      | 24  | 7.8  |
|   | Budda                         | 12  | 3.9  |
|   | None                          | 175 | 57.2 |
| Major satisfaction                                | Very satisfied                | 64  | 20.9 |
|   | Satisfied                     | 168 | 54.9 |
|   | Neutral                       | 70  | 22.9 |
|   | Dissatisfied                  | 4   | 1.3  |
| Application motivation                            | Academic score                | 9   | 2.9  |
|   | Aptitude                      | 91  | 29.8 |
|   | Guarantee of Employment       | 121 | 39.5 |
|   | Advices of family Service     | 34  | 11.1 |
| Nurse family                                      | Yes                           | 77  | 25.2 |
|   | No                            | 229 | 74.8 |
| Idea toward nursing job                           | Very affirmative              | 78  | 25.5 |
|   | Affirmative                   | 220 | 71.9 |
|   | Negative                      | 8   | 2.6  |
| Factor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nurses' image | Tv Drama                      | 107 | 34.9 |
|   | Popular books                 | 4   | 1.3  |
|   | Visiting hospital             | 123 | 40.2 |
|   | Nurse in family               | 33  | 10.8 |
|   | Clinical practice             | 21  | 6.9  |
|   | Professor indirect experience | 18  | 5.9  |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s (N=306)

| Variables               | Subcategory                     | Mean±SD   | Range     |
|-------------------------|---------------------------------|-----------|-----------|
| Nurse's image           | Traditional image               | 4.17±0.50 | 2.17-5.00 |
|                         | Social image                    | 3.82±0.59 | 2.00-5.00 |
|                         | Professional image              | 4.40±0.49 | 2.67-5.00 |
|                         | Individual image                | 3.95±0.75 | 1.00-5.00 |
|                         | Total                           | 4.12±0.46 | 2.67-5.00 |
| Job Value               | Total                           | 3.12±0.27 | 2.57-3.82 |
| Nursing Professionalism | Self concept of Professionalism | 4.09±0.52 | 2.17-5.00 |
|                         | Social awareness                | 3.61±0.66 | 1.80-5.00 |
|                         | Professionalism of nursing      | 4.14±0.58 | 2.33-5.00 |
|                         | Role of nurse                   | 4.17±0.61 | 1.50-5.00 |
|                         | Autonomy of nurse               | 4.18±0.79 | 1.00-5.00 |
|                         | Total                           | 3.98±0.45 | 2.28-5.00 |

<Table 3> Correlation among Nurse's Image, Job Value, Nursing Professionalism (N=306)

|                         | Nurse's Image  | Job Value      | Nursing Professionalism |
|-------------------------|----------------|----------------|-------------------------|
|                         | r(p)           | r(p)           | r(p)                    |
| Nurse's Image           | 1              |                |                         |
| Job Value               | 0.471<br><.001 | 1              |                         |
| Nursing Professionalism | 0.823<br><.001 | 0.492<br><.001 | 1                       |

5.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간호학과 신입생의 간호사 이미지 정도는 평균 평점이 4.12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Gu 등[6]의 연구에서의 4.16점과 비슷한 수준이고, Lim 등[2]의 연구에서 보고한 4.00점, Lim 등[3]의 3.95점, Ham 등[11]의 3.71점 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간호사 이미지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전문적 이미지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통적 이미지, 개인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Ham 등[11]의 연구, Gu 등[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간호학과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이미 대중매체나 문헌 등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전문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간호교육 인증제, 간호교육 일원화 등을 통한 간호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이 간호사의 전문적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나 개인적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간호사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져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직업가치관에 대한 정도는 평균 3.12점으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Nam과 Lee[20]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직업정체성이 낮아지고, Kim[13]도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직업가치관이 낮아진다고 하여 임상실습의 부정적 측면이 간호사라는 직업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학생의 직업가치관은 전문적 교육을 받는 동안 형성되기 시작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11], 직업가치관이 형성되는 초기 시점인 신입생 시기에 정규교육 등을 통한 가치관 정립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간호학과 신입생의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평균 평점이 3.98점으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Lim 등[3]의 4.0점과 유사한 결과이며, Sung 등[5]의 3.83점, Gu 등[6]의 3.83점 보다는 약간 높았다. 본 연구가 신입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신입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이 다른 학년보다 높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간호의 독자성이 4.18점으로 가장 높았고, 간호계 역할이 4.17점, 간호전문성이 4.14점, 전문직 자아개념이 4.08점, 사회적 인식이 3.61점 순이었다. 이는 간호전문직관 중 간호의 독자성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한 Gu 등[6]이나 Yoon 등[22]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또한 간호업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f Nursing Professionalism (N=306)

| Factors                                       | B    | $\beta$ | t     | p    |
|---|------|---------|-------|------|
| Nurse's Image                                 | .502 | .760    | 21.03 | .000 |
| Job Value                                     | .148 | .134    | 3.71  | .000 |
| Adj R <sup>2</sup> = .690 F(p)=340.52(p<.001) |      |         |       |      |

무의 독자성과 전문성 및 자율성을 갖고 간호를 수행하면서 간호전문직관이 형성된다고 한 Han 등[8]의 연구 결과도 본 연구를 지지한다. Sung 등[5]의 연구에서는 간호의 독자성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본 연구와 대비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과거 간호사가 의사의 보조자로서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여겨진다. 최근 간호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로 변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사회의 고정관념, 편견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호의 전문성과 더불어 간호의 독자성,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임상실습을 경험하기 전의 신입생의 경우 간호직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므로[6,11] 간호의 개념이 변화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전통적인 돌봄이 아닌 간호전문직관에 근거한 돌봄으로서의 간호가 정립되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간호학과 신입생의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 이미지, 직업가치관 정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간호사 이미지가 높을수록, 직업가치관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자간호학생의 간호사 이미지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높았다고 한 Lim 등[3]의 연구,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연구한 Sung 등[5]의 연구, 졸업 학년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에 간호사 이미지가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보고한 Ham 등[1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직업가치관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전문직관과 직업가치관을 연구한 것이 없어 직접적인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간호학과 신입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간호사 이미지, 직업가치관으로, 그중 간호사 이미지가 가장 설명력이 높았고 전체 설명력은 69%였다. 이러한 결과는 Lim 등[3]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졸업 학년이 지각하는 간호전문직관을 연구한 Ham 등[11]의 연구에서 간호사 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에 높은 영향력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위의 결과를 통해 간호학과 신입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 이미지를 높이는 전략

과 더불어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Kim[23]은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간호학생의 간호에 대한 시각과 간호사 이미지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고 있어, 1학년 때부터 정규교육과정이나 비정규 프로그램, 현장체험교육 등을 적용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간호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은 간호학계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간호학과 신입생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간호사 이미지를 키우기 위해 전통적, 사회적 이미지를 함께 키워나가야 할 것이며, 직업가치관을 키우기 위해 비정규프로그램 등을 개발, 적용하여 간호사 직업에 대한 가치관과 간호전문직관을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 또한 대학을 갓 입학한 신입생들이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뿐 아니라 다양한 접근을 통해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6. 결론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간호사 이미지, 직업가치관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신입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간호사 이미지 정도는 5점 만점 중 4.12점이었고, 직업가치관은 3.12점, 간호전문직관은 3.98점이었다. 간호전문직관에 간호사 이미지와 직업가치관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특히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요인은 간호사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69%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사 이미지와 직업가치관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일개지역의 1개 대학 간호학과 신입생을 연구대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을 갖는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직업가치관과 간호전문직관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 REFERENCES

- [1] Yeun, E. J., Kwon, Y. M., & Ahn, O. H. (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1091-1100.  
doi : 10.4040/jkan.2005.35.6.1091
- [2] Lim, K. M., & Jo, E. J. (2016).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4), 556-566.  
doi : 10.5762/KAIS.2016.17.4.556
- [3] Lim, K. M., Kim, H. Y., & Park, G. J. (2017). The influence of nurse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0), 423-431.  
doi:10.5762/KAIS.2017.18.10.423
- [4] Kim, M. A., Lim, J. Y., Kim, S. Y., Kim, E. J., Lee, J. E., & Ko, Y. K. (2004). Influencing factors of career attitud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3(4), 383-391.
- [5] Seong, J. A., Yeom, E. Y., & Do, Y. S. (2014). Image of nurses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1), 798-809.  
doi : 10.5392/JKCA.2014.14.11.798
- [6] Gu, H. J., & Lee, O. S. (2015). The correlation between nurse's image, biomedical ethics and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1), 7356-7366.  
doi : 10.5762/KAIS.2015.16.11.7356
- [7] Hwang, J. I., Lou, F., Han, S. S., Cao, F., Kim, W. O., & Li, P. (2009). Professionalism: the major factor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among Korean and Chinese nurses.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56(3), 313-318.  
doi : 10.1111/j.1466-7657.2009.00710.x|
- [8] Han, S. S., Kim, M. H., & Yung, E. K. (2008).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1), 73-79.  
doi : 10.5977/JKASNE.2008.14.1.073
- [9] Yun, E. J. (1995). A study on professional nursing image of nursing unit manager: Q-methodology approac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10] Jeong, H. S., & Yoo, Y. S. (2010). Image of nurses a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d image determina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4(1), 29-38.  
doi : 10.5932/JKPHN.2010.24.1.029
- [11] Ham, Y. S., Kim, H. S., Cho, I. S., & Lim, J. Y. (2011).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536-544.  
doi : 10.5977/JKASNE.2011.17.3.536
- [12] Hwang, M. A., (2000) A study on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sense of value in occupation. Unpublished master degree, Kangwon University, Kangwon.
- [13] Kim, J. K. (2016). Subjectivity of Job Values among the Nursing Students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Society*

- for the Scientific Study of Subjectivity, 34, 5-25.
- [14] Yang, I. S. (1998).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determinants the imag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4(2), 289-306.
- [15] Lee, S. H., Kim, S. Y., & Kim, J. A. (2004).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0(2), 219-231.
- [16] Doo, H. J., & Kim, Y. S. (2008). Study on 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subjectivity in their attitude toward job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2), 167-175.  
doi : 10.5977/JKASNE.2008.14.2.167
- [17] Yeun, E. J., Kwon, Y. M., & Ahn, O. H. (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1091-1100.  
doi : 10.4040/jkan.2005.35.6.1091
- [18] Han, S. S., Kim, M. H., & Yung, E. K. (2008).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1), 73-79.
- [19] Kim, S. D. (2012). Changes in the Image of Nursing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after History & Philosophy of Nursing Co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8(3), 301-309.
- [20] Nam, M. H., & Lee, M. R. (2016).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self-esteem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profess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2(4), 527.  
doi : 10.5977/jkasne.2016.22.4.527
- [21] Yoon, H. K., Choi, J., Lee, E. Y., Lee, H., & Park, M. (2013). Effects of decision making competenc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mpulse among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5), 658-667.  
doi : 10.11111/jkana.2013.19.5.658
- [22] Kim, H. Y. (2015). Comparison of Major Satisfaction and Work Value between Nursing Students by the Grad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imulation in Nursing*, 3(1), 41-51.

장영미 (Young Mi Jang) [정회원]



- 2002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9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6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간호교육, 간호윤리, 만성질환
- E-Mail : jym79@dst.ac.kr